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원주민들이 이주한 금천면 동악 원주민촌 전경. 입구에 가로등 하나 설치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빛가람도시 어두운 그림자 '동악 원주민촌'

토지 수용으로 이주한 26세대 거주
걸으면 쾌적한 주거시설 내부는 엉망
LPG 난방비 부담... 힘겨운 겨울나기
입구엔 가로등도 없어 교통사고 위험
대부분 고령자 "무관심이 더 서러워"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져 집안 곳곳이 곰팡이로 얼룩져 있다.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일대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이하 빛가람동)가 건설되며 신도시를 형성, 이 지역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었다. 반면 조상대로 이곳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교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오고 있다. 대부분 영세·고령자인 이들은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빛가람동의 조성에 따른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셈이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동 건립으로 나주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13개 마을 483가구가 이주했다.

혁신도시 원주민들은 ▲농지는 남고 집만 뜯긴 경우 ▲농지와 집터가 모두 수용된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원주민은 산포면 신도리 739-56번지 일원에 새롭게 조성된 원주민 이주단지에서 터를 잡고 여전히 농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채 잃어버렸다. 자식마저 모두 떠나고 고령·영세 원주민들이 옛 금천 남초교 부지에 만든 혁신도시 원주민 주거시설(동악 원주민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동악 원주민촌은 나주시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주거시설 2동 8호 (13.6평형)와 5동 18호 (17평형) 등 총 26호와 다목적회관, 게이트볼장 등을 갖추고 지난 2010년 완공했다.

입주민들은 65세 이상 영세고령자나 기초생활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현재 26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원주민 주거시설은 걸로만 보면 전원주택처럼 조성된 쾌적한 환경처럼 보인다. 하지만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져 입주 때부터 여름 우기와 겨울이면 방과 부엌, 다용도실 등 집안 전체가 곰팡이로 뒤덮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실제로 25일 본보의 확인결과, 이 마을 김모씨의 집 천장은 아예 곰팡이가 넓게 퍼져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다른 집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곰팡이와 습기로 벽지 곳곳이 찢어지고 방안 가득 곰팡이 냄새가 풍겼다. 이곳 주민들은 "건설 당시에도 벽에 철근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그동안 한차례 벽지를 새로 교체하는데 그쳤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원주민촌이 최첨단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에 접해 있지만 도시가스나 아닌 LPG(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고령·영세 원주민들은 높은 난방비 탓에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고 있다.

추위를 견디다 못한 일부 주민들은 플라스틱 빈

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이불 속에 넣어 둔 채 잠이 드는 등 '혁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 주민이 고령이지만 마을 입구 도로에는 가로등 하나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제때에 수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원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김동남(여·75)씨는 "애초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노인건강타운을 조성해 밥도 해주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약속했다"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가장 젊은' 70대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해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영세 원주민들이 무엇보다 서러워하는 것은 무관심에서 오는 허탈감이다.

지난 2013년 우정정보센터를 시작으로 한전을 비롯해 13개 이전기관이 이주를 완료했다. 이후 이전 기관들은 앞다퉀 김장담그기와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원주민에 대한 도움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내준 이들에게 지금까지 음료수 하나 들고 찾아온 기관은 한곳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전력은 지난 10일 본사 36개 모든 처·실과 나주시 36개 마을간 1차·1촌 자매결연을 했지만 정작 원주민 이주단지는 제외됐다.

이점주 시장은 "이전 후 첫 설을 맞아 이전기관중 하나라도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각 기관마다 봉사단체가 있고, 기관에서 지역민과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위해 1과·1촌을 맺는데 먼저 원주민촌을 찾아와 노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내줘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쯤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청 관계자는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을 세우고 있다"면서 "이전기관 봉사 동아리와 연계해 고령 원주민과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상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나주=송영철기자 yacson@

430년 가로지른 조상과 후손의 '목사골 인연'

김성일 나주목사의 14대 후손 김시호 한전 영업본부장
조상 선정 베풀던 곳서 옛 모습 보존·정비하는 일 맡아

"수백년 전 조상이 선정을 베풀었던 곳에서 직계 후손이 옛 모습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골 나주에서 핀 조상과 후손의 '430년만의 인연'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 김시호 영업본부장.

김 본부장의 조상은 조선 중기 1583년 나주에 부임해 선정을 베풀 학봉 김성일(1538~1593) 목사다. 김 목사는 나주목사 재임중 지역 최초로 사액서원인 대곡서원을 세워 퇴계학과 나주 유림을 연계해 유학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나주목(牧) 관아 정문인 정수루에 백성의 억울함을 듣는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이 신문고는 나주시가 제야 때 북을 치는 '정수루 북 두드림 제야행사'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나주시는 관사였던 목사내아에 김성일의 이름을 붙인 방을 한옥 체형장으로 개방하는 등 그의 선정을 기리고 있다.

김 본부장이 나주에 부임한 것은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여기에 한국전력이 역점사업 중 하나로 지역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지상에 설치된 배전설비를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김 본부장을 임명했다. 조상의 얼이 배어있던 거리를 보존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하는



김시호 한전 영업본부장이 직계 조상인 나주목사 김성일 방 안내문을 가리키며 환하게 웃고 있다.

14대 후손이 맡아서 하는 셈이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김시호 본부장은 "전신주와 배전설비 등을 지중화해서 경관을 살리는 일을 후손이 한다는 것에 조상과의 인연을 떠올린다"며 "목사고을로서의 '과거 천년'과 에너지 벨리로 '미래 천년'을 꿈꾸는 한전의 상생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나주 신(新) 지중 모델 시범구축'사업은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금성관과 중앙로 주변에 내년 10월까지 첨단 공법으로 4가지 지중화 모델의 특화거리 3.9km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이 끝나면 ▲나주읍성 4대문 복원 ▲나주목 관아·향교 주변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도시경관 개선에 획기적인 기여와 함께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송영철기자 yacson@

강인규 시장 20개 읍면동 순방 시민과 소통 나서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24일 남평읍을 시작으로 3월 12일까지 20개 읍·면·동을 돌며 시장현안을 설명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식 소통행진'에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24일 남평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읍면동 순방'에서 민선 6기 들어 추진하고 있는 천년 역사도시 목사고를 재창조와 시민의 복지와 행복 체감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혁신도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호남고속철도 KTX 나주역 정차 사실성 확정과 나주읍성 등 3개 지구에 기반시설 사업비 374억원이 투입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혁신도시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말 인구 9만명선 회복 등의 성과를 이뤘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강 시장은 "올해 신설된 '시민 소통실'을 중심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상생과 통합의 시정을 펼쳐 나가고, '농업인 월급제'와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지수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한국전력에서 총 2622억원을 투입하는 '광주·전남 지역혁신사업 계획'과 연계해 나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시정계획도 밝혔다.

한편 강인규시장은 취임 직후 지난해 8월 실시한 초도순방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424건 가운데 지난해말 현재 135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추진중이거나 장기과제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나주=정철원기자 chung@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8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앙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8511
동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물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 - 062 227-9600 | 신문구독 - 062 220-0551 | 예향구독 - 062 220-0550